

## 미용전공과 비전공 여대생의 모발영양지식, 모발상태, 모발행동에 관한 연구

노 영 희  
충청대학 피부미용과

### A Study on Hair Condition, Hair Control and Nutrition Knowledge of Hair and Beauty Care Major and Non-Major Female Students

Young-Hee Noh

*Dept. of Dermatology and Beauty, Chung Cheong College, Gangnae,  
Chengwon, Chungbuk, 363-390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nutrition knowledge of hair, hair condition and hair behaviors and beauty major and non-major female students. Results were obtained by a questionnaire in 146 students majoring in beauty care and in 145 students not majoring at Chung-Ju. In the awareness of hair nourishment, th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care showed higher score on hair nourishment and more experience on taking a hair condition test. However, worries about hair conditioning and damaged hair were not different between two groups. Typically students majoring in beauty care cared much more for their hair showing higher incidence rate of hair care and more expenditure on making hair style per one operation. Visiting hair salon is done once per two or three months in both groups. The criteria for choosing hair conditioner is based on the quality of hair conditioner and hair condition in both groups. In a conclusion, the course on hair nourishment positively affect the students taking the course. The knowledge on hair nourishment and hair science directed the students in a proper hair care. It is assumed that healthy hair is obtained by a precise nourishment of hair care and programs to educate the hair care is necessary even for the students not majoring in hair care.

Key words : nutrition knowledge of hair, hair condition, hair behaviors.

#### 서 론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인간의 기본욕구인 의식주가 충족됨에 따라, 미에 대한 욕구를 추구하고 있어, 연령과 성별 계층에 제한없이 미는 모든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sup>1)</sup>. 더불어 현대의 미용산업은 급속히 발전하였고, 국제적 교류와 세계문물의 급속한 유입, 그리고 국민소득의 급성장에 따른 경제적인 여유는 모발에 대한 다양성과 학문적 요구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 1980년대 초

국내에는 많은 미용학원들이 개원하기 시작했으며, 그 후 1991년 전문대학에 미용관련학과가 신설됨을 시작으로 여러 대학에 미용과가 개설되었으며, 현재도 계속 신설되어 미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sup>2,3)</sup>. 이렇게 미용에 대한 인력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민감하게 접할 기회도 늘어나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빈도가 증가하였다<sup>4)</sup>.

특히, 여대생들은 본인의 모발고민거리로 머리결과 헤어스타일을 들었고 빈번한 퍼머·염색·탈색 등

\* Corresponding author : Young-Hee Noh

의 시술로 모발이 손상되고 있지만, 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sup>5)</sup>도 있었다. 이전의 몇몇 보고에서<sup>6,7)</sup> 영양교육을 받은 학생이 영양지식·식습관·영양태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식품영양전공학생이 비전공학생에 비하여 식행동, 식습관 영양지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 이런 보고로 미루어 볼 때, 모발영양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모발상태나 모발행동이 양호할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바람직한 모발관리를 위한 모발교육의 실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피부미용을 전공한 여대생과 비전공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모발영양인지도와 모발관리방법을 조사하여 그들의 모발상태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2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피부미용전공 여학생(146)과 비전공여학생(145)을 대상으로 1999년 9월 15일에서 9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배부된 310부의 설문지중 기재가 미비한 것을 제외한 291부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2. 조사도구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문항은 모발영양인지도에 관한 사항 10문항, 모발상태에 관한 사항 4문항, 모발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5문항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Table 1. Nutrition knowledge of hair**

Nutrition knowledge of hair	Beauty major	Other major
Total	6.51±2.3***	5.33±2.2
Mean±S.D	*** P<0.001	

**3. 조사자료의 처리방법**

통계처리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모든문항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유의성 검증을 하기 위해  $\chi^2$ -test를 하였다<sup>9)</sup>.

**결과 및 고찰**

**1. 모발영양지식**

피부미용전공으로 모발영양에 관한 교육을 받은 여대생과 비전공여대생간에 모발영양지식에 대한 차이를 t-test에 의해 알아본 결과 Table 1에 나타난 것처럼 전공이 6.5, 비전공은 5.3으로 P<0.001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차이가 나타나 모발영양교육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 최<sup>3)</sup>, 김<sup>10)</sup> 등도 영양교육을 받은 후 영양지식의 정답율이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바람직한 모발관리를 위한 모발교육의 실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전공, 비전공별로 각각 문항에 대해 옳게 대답한 대상자의 수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0문항에 대해 전공여대생이 비전공여대생보다 옳게 대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모발의 윤기를 위해

**Table 2.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on question items about nutrition knowledge of hair**

Question items	Beauty major	Other major	Total(%)	$\chi^2$ -test
1. Most of hair consist of protein	138(50.6)	135(49.5)	273(100)	0.252
2. Intake of seaweeds is good for growth of hair	104(51.2)	99(48.8)	203(100)	0.302
3. Intake of soybean and sesame is good for glossy of hair	90(59.6)	61(40.4)	151(100)	11.166***
4. Vit-A prevent drying and fragment of hair	97(57.4)	72(42.6)	169(100)	8.416
5. Vit-C prevent white hair	54(55.1)	44(44.9)	98(100)	1.437
6. Vit-B <sub>2</sub> prevent dandruff	95(62.5)	57(37.5)	152(100)	19.346***
7. Drinking of alcoholic beverage people is much dandruff	22(56.4)	20(47.6)	42(100)	0.096
8. Hair treatment is necessary for healty hair	139(50.7)	135(49.3)	274(100)	0.584
9. I think that good food habits help health of hair	97(58.1)	70(41.9)	163(100)	9.814**
10. Imformation of nutrition knowledge of hair make an effort for real life	14(58.8)	80(41.2)	194(100)	17.182***

\*\* P<0.01, \*\*\* P<0.001

깨나 콩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항목과 Vit-B1은 비듬을 방지한다하는 항목은 두 그룹간의 차이가  $P < 0.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전공여대생이 모발영양에 대해 옳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전공여대생일수록 비전공 여대생에 비해 본인의 식생활이 모발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었으며 ( $P < 0.01$ ) 영양과 미용건강에 대한 정보를 응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P < 0.001$ ).

## 2. 모발의 상태

조사대상자의 모발진단 유류에 대한 응답은 Table 3에 제시된 것처럼 전공인 대상자와 비전공 대상자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 ( $P < 0.001$ )를 보여 전공대상자 모발진단을 받아본 경험이 훨씬 많았다. 모발상태는 손상모인 비율이 전공 대상자가 54.8%, 비전공 대상자가 49.0%로 두 그룹이 비슷하였고, 다공성모·건강모도 유사한 수준이었다. 모발손상원인도 두 그룹 모두 염색·피머·탈색 등의 원인이 가장 많았고, 모발에 대한 걱정도 머리결로 인한 걱정이 전공자가 56.2%, 비전공자가 55.9%로 나타나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여 두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Table 3).

## 3. 모발행동

모발관리를 하는 방법도 두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 ( $P < 0.001$ )를 보여 피부미용전공 대상자일수록 모발에 영양공급이나 트리트먼트를 하는 비율이 비전공 여대생에 비해 높았고, 비전공여대생의 경우 전혀 모발관리를 하지 않은 비율이 37.2%로 전공여대생에 비해 훨씬 높았다(Table 4).

이런 결과는 미용전공 여대생들은 모발에 대한 교육을 받아 모발에대한 관심도가 더 높고 모발관리방법을 알기 때문에 모발관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모발손질 횟수도 두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전공여대생이 비전공여대생에 비해 모발손질 횟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미용실 출입횟수는 두 그룹 모두 2~3달에 한번 정도로 미용실을 찾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두 그룹간에 차이는 없었다. 1회 머리손질에 투자하는 비용은 전공대상자는 30,000~50,000원이 37.0%로 가장 많았고, 비전공대상자는 20,000원 미만이 46.2%로 가장 높았다. 50,000원 이상을 소비하는 대상자는 전공대상자가 8.2%로 비전공대상자의 비율인 4.1%의 두 배에 해당되었으나 유의성을 보이진 못하였다. 매일같이 사용하는 샴푸는 두 그룹 모두 샴푸의 결과 본인의 모발상태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Hair condition

		Beauty major	Other major	Total(%)	$\chi^2$ -test
Hair condition test	Yes	4(27.8)	14( 9.7)	54(18.8)	15.407***
	No	104(72.2)	130(90.3)	234(81.3)	
Hair condition	Healthy hair	34(23.3)	29(20.0)	63(21.7)	3.441
	Porous hair	7( 4.8)	12( 8.3)	19( 6.5)	
	Damage hair	80(54.8)	77(49.0)	151(51.9)	
	Unknown	25(17.1)	33(22.8)	58(19.9)	
Reason of hair damage	Under nutrition	18(12.3)	18(12.4)	36(12.4)	4.501
	Over comb·cut	2( 1.4)	3( 2.1)	5( 1.7)	
	Dry	27(18.5)	38(26.2)	65(22.3)	
	Coloring·perm·bleaching	77(52.7)	60(41.3)	137(47.1)	
Worry about hair	Unknown	22(15.1)	26(17.9)	48(16.5)	3.569
	Fallen hair	17(11.6)	12( 8.3)	29(10.0)	
	White hair	5( 3.4)	4( 2.8)	9( 3.1)	
	Glossy of hair	82(56.2)	81(55.9)	163(56.0)	
	Hair style	36(24.7)	35(24.1)	71(24.4)	
	Unknown	6( 4.1)	13( 9.0)	19( 6.5)	
Total		146(100)	145(100)		

\*\*\*  $P < 0.001$

Table 4. Hair behaviors

Factor	Beauth major	Other major	Total (%)	$\chi^2$ -test	
Control method of hair	Nutrition	3( 2.1)	4( 2.8)	7( 2.4)	26.695***
	Treatment	58(39.7)	19(13.1)	77(26.5)	
	Use of rinse	50(34.3)	68(46.9)	118(40.6)	
	None	35(24.0)	54(37.2)	89(30.6)	
Rate of hair care	One time/day	19(13.0)	26(17.9)	45(15.5)	6.762
	One time/week	52(35.6)	42(29 )	94(32.3)	
	2~3 times/week	34(23.3)	22(15.2)	56(19.2)	
	None	41(28.1)	55(37.9)	96(33.0)	
Visting hair salon	One time/2~3 week	1( 0.7)	7( 4.8)	8( 2.8)	7.028
	One time/month	33(22.6)	23(15.9)	56(19.2)	
	One time/2~3 month	68(46.6)	76(52.4)	144(49.5)	
	Over 4months	44(30.1)	39(26.9)	83(28.5)	
Expenditure on hair per one operation	20,000 >	49(33.6)	67(46.2)	116(39.9)	6.891
	20,000~29,999	31(21.2)	32(22.1)	63(21.7)	
	30,000~49,999	54(37.0)	40(27.6)	94(32.3)	
	50,000 ≤	12( 8.2)	6( 4.1)	18( 6.2)	
Criteria for choosing shampoo	Quality of shampoo	55(39.0)	60(44.1)	115(41.5)	2.811
	Condition of hair	56(39.7)	44(32.4)	100(36.1)	
	Price of shmpoo	10( 7.1)	15(11.0)	25( 9.0)	
	Advertisement	20(14.2)	17(12.5)	37(13.4)	
Total	146(100)	145(100)			

\*\*\* P<0.001

요 약

본 연구는 피부미용전공과 비전공여대생의 모발영양지식을 파악하고 모발영양에 관한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과 수강하지 않은 대상자들간의 모발상태, 모발행동 등을 연구하고자 청주에 있는 피부미용과 여대생 146명과 비전공여대생 145명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발영양지식은 전공여대생이 비전공여대생에 비해 훨씬 높았고, 모발의 진단을 받아본 경험도 전공대상자가 높았다. 그러나 모발상태, 손상원인 모발에 관한 걱정은 두 그룹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모발관리도 전공대상자가 비전공대상자보다 많이 하고 있었고, 모발손질 횟수도 전공대상자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미용실 출입횟수는 2~3달에 한번이 가장 높았고, 그룹간에 차이는 없었다. 1회 머리손질 비용도 전공대상자가 비전공대상자에 비해 높은 경향이었고, 샴푸의 선택기준은 두 그룹 모두 샴푸의 질과 본인 모발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결론적으로 피부미용전공 여대생은 모발영양과 모발관리학 등에 관한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모발영양 지식이 많아 모발행동이 더 바람직하였고, 모발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였다. 그러므로 모발에 관한 교육 건 강한 모발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모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비전공여대생들에게도 모발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1. 이주연, 강병호 . 식습관이 미용에 끼치는 영향실태조사, *한국미용학회지*, 4, 235-247 (1998).
2. 구자영, 장문정 : 전문대학 미용계학과 의 학과명칭과 교육과정 수정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2, 163~186 (1996).
3. 한영숙 : 수도권에 소재한 전문대학 미용관련과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연구, *한국미용학회지*, 3, 259~279 (1997).
4. 김희숙 : 20세기 한국여성의 헤어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 15-24 (1995).
5. 노영희 : 여대생의 식습관이 모발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영양학회지*, 12, 529-535 (1999).

6. 송요숙 : 식품영양학 교양과목이 대학생의 영양지식과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영양학회지*, 19, 420~426 (1986)
7. Lewis, M., Brun, M., Talmage, H., and Rasher, S. : Teenagers and food choices : The impact of nutrition education, *JUN*, 20, 336~340 (1988).
8. 최미숙, 최도점 : 식품영양전공과 비전공여대생의 식행동과 영양지식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12, 306~311 (1999).
9. 장지민, 박사규, 이경주 : SAS/PC를 이용한 통계자료 분석, 범문사 (1996).
10. 김기남, 이경신 . 남녀 대학생의 영양지식, 식태도 및 식행동에 대한 영양교육의 효과. *지역사회영양학회지*, 286~293 (1997).

---

(1999년 12월 8일 접수)